

# 증거성 표지의 통사적 투사

심창용

(경인교육대학교)

**Sim, Chang-Yong. (2020). Syntactic representation of evidentiality marker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8(3), 1-15. Languages like Korean employ evidentiality markers such as Inference *-kyess-*, Sensory *-ney/-te-*, Reportative *-ay*, and Quotative *-ko*. These evidentiality markers receive interpretations outside the scope of negation and certain adverbs are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evidential marker. In addition, certain evidentiality markers co-occur while other evidential markers exhibit a co-occurrence restriction. In order account for these facts, the current paper proposes a slightly complicated but fine structure of C area with evidentiality markers. Each evidentiality marker occurs on the relevant functional head in the C domain. By positing this fine structure of CP, the facts that evidentiality is out of the scope of negation and the choice of certain adverbs as well as the selectional restrictions between the functional heads can be accounted for.

**주제어(Key Words):** 증거성(evidentiality), 증거성 표지 (evidentiality marker), 통사 구조(syntactic structure), 다층위 CP(layered CP)

## 1. 머리말

자연언어는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성(evidentiality)을 표현한다. 한국어와 같은 언어에서 증거성은 어휘적으로 표시되기도 하고, 문법 표지를 사용하여 표시하기도 한다. 송재목(2018: 116)은 (1)의 예문들이 ‘기술하는 사건/상황에 관한 정보 획득의 구체적인 방법을 어휘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1) 송재목(2018: 116)
  - a. 철수가 학교에 가는 것을 영화는 봤다. (직접 증거성)
  - b. 철수가 학교에 갔을 것으로 영화는 추측했다. (추론 증거성)
  - c. 철수가 학교에 갔다고 영화는 들었다. (보고 증거성)

직접 증거성, 추론 증거성, 보고 증거성은 증거성 표지를 이용하여 표시되기도 한다. 아래의 예문에서 *-터/-네, -겠-*, *-대*는 각각 직접 증거성, 추론 증거성, 보고 증거성을 나타냄을 보여준다.

- (2) a. 요다가 영화를 보고 있더라. (직접 증거성)
- b. 요다가 영화를 보고 있네. (직접 증거성)
- c. 지금쯤 요다가 영화를 보고 있겠군. (추론 증거성)
- d. 요다가 영화를 보고 있대. (보고 증거성)

한국어의 보문소(complementizer)로 여겨지는 *-고* 또한 증거성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일반적인 보문소의 특징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 보문소는 문장의 형태, 즉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표시한다면, 한국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평서문 표지와 의문문 표지가 *-고*와 같이 나타난다.

- (3) a. (나는) 요다가 집에 갔다고 말했잖아. (직접 증거성)
- b. (나는) 요다가 집에 갔다고 생각했어. (추론 증거성)
- c. (나는) 요다가 집에 갔다고 들었어. (보고 증거성)

- (4) a. (너는) 요다가 집에 갔냐고 물었잖아. (직접 증거성)
- b. (그 사람은) 요다가 집에 갔냐고 말했어. (직접 증거성)

생성문법의 틀 안에서의 그동안의 연구들은 증거성 표지들이 어떻게 통사적으로 투사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의 증거성 표지들이 통사적으로 어떻게 투사되는지에 대해 밝히고, 보다 상세한 한국어 보문소의 구조를 제안할 것이다.

## 2. 증거성

### 2.1. 증거성이란

증거성은 화자의 발화 내용의 출처, 즉 ‘정보의 소스’를 밝히는 것(de Haan, 1999; Aikhenvald, 2004), 혹은 ‘정보의 원천과 지식의 신뢰성’(Chafe, 1986)으로, 언어에 따라서 증거성 표지의 사용에 차이가 있다. 또한 증거성 표지는 양태(modality) 범주로 분류되기도 하고, 양태와 구별되는 별개의 문법 범주로 분류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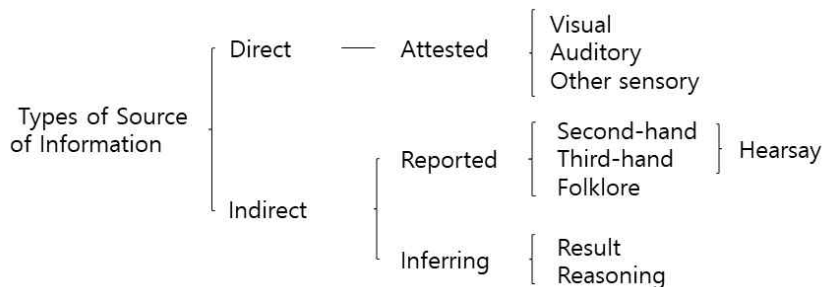
양태는 ‘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특정한 태도(certain attitudes of the speaker towards the contents of a sentence)’(Jespersen, 1924: 313),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나 혹은 명제가 기술하는 상황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 (opinion or attitude towards the proposition that the sentence expresses or the situation that the proposition describes)’ Lyons(1977: 452), 혹은 ‘사건을 기술하는 명제의 상태(status of the proposition that describes the event)’(Palmer, 2001: 1) 등으로 정의된다.

다양한 양태 범주 중 인식 양태는 ‘화자가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표시하는 양태 체제(modal system that indicates the degree of commitment by the speaker to what he says)’(Palmer, 1986: 51)이며, 확신의 정도는, Bybee 외(1994)에 따르면, 가능성(possibility), 개연성(probability), 확실성(certainty) 등을 표현한다. 송재목(2009)은 이를 근거로 (5b)와 (5c) 사이의 화자의 확신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5) a. John is in the office.
- b. John may be in his office. (possibility)
- c. John must be in his office. (certainty)

증거성은 정보의 출처 혹은 정보획득의 방법을 문법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송재목, 2009), 직접 획득한 정보, 간접적으로 획득한 정보, 보고, 추론 등의 하위 범주를 가지므로 인식 양태와 구별된다. Willett(1988: 57)의 경우 증거성을 직접 증거성과 간접 증거성으로 구분하고, 간접 증거성을 다시 보고 증거성과 추론 증거성으로 나누고 있다.

- (6) Willett(1988)의 증거성 표지의 유형



Aikhenvald(2004)는 증거성을 가정(assumption)과 인용(quotative)을 포함한 6개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 (7) Aikhenvald(2004)의 증거성의 유형

- I. 시각 Visual covers evidence acquired through seeing.
- II. 감각 Sensory covers evidence through hearing, and is typically extended to smell and taste, and sometimes also touch.
- III. 추론 Inference based on visible or tangible evidence or result.
- IV. 가정 Assumption based on evidence other than visible results: this may include logical reasoning, assumption or simply general knowledge.
- V. 보고 Reported, for reported information with no reference to who it was reported by.
- VI. 인용 Quotative, for reported information with an overt reference to the quoted source.

이러한 증거성의 범주는 언어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Aikhenvald(2004)의 범주를 근거로 한국어의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8) a. 시각: 요다가 고기를 잡고 있네.
- b. 감각: (초인종 소리에) 누가 왔나 보네.
- c. 시각/감각: 요다가 집에 가더라.
- d. 추론: (요다가 매우 취한 것으로 보고) 재가 그 술 다 마셨겠네.
- e. 가정: 지금쯤 요다가 집에 갔겠다.
- f. 보고: 요다가 술에 취했대.
- g. 인용: 레어는 요다가 술에 취했다고 했어요.

(8a)와 (8b)의 예문은 증거성 표지 *-네*를 사용하고 있고, 한국어에서 시각 증거성 표지와 감각 증거성 표지가 통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네*는 발화하는 현재 상황에서의 시각/감각 증거를 제시한다. 그래서 ‘누가 왔었나 보네.’와 같은 경우도 현재의 상황에서 관찰한 증거를 근거로 ‘누군가 왔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예문 (8c)의 *-더*는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하는 증거성 표지로, 시각과 감각을 역시 아우른다. 그래서 (8c)는 요다가 가방을 메고 집이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았던지, 교실에서 요다가 떠나는 소리를 들었던지 등의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8d)는 현재의 요다의 취한 정도를 보고 마신 술의 양을 추정하고 있고, (8e)는 요다가 출발한 시간 등의 정보와 집에 도착할 때까지의 소요 시간 등에 근거하여 집에 도착할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 경우 역시 추론과 가정이 동일한 증거성 표지 *-겠-*으로 통합되어 나타난다. (8f)의 증거성 표지 *-대*는 누군가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8g)의 *-고*는 레어가 한 말을 인용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증거성 표지이다.

## 2.2. 한국어의 증거성 연구

한국어의 증거성 연구는 최근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Chung(2005)은 증거성이 시상 체계의 중요 범주라고 주장하며, 직시적 증거성 표지와 보고 증거성 표지로 분류하고 있다.

## (9) Chung(2005)의 한국어 증거성 표지 유형

- a. 직시적 증거성 표지: *-네*, *-더*  
직접(Ø) > 결과로부터 추론(-었-) > 추리(-겠-)
- b. 보고 증거성 표지: *이차(-다더라/ -다데)*, *전문(-단다/대)*

Chung(2005)은 한국어의 증거성은 선어말 어미 *Ø/-었-/-겠-*가 담당하며, *-더*와 함께 사용되면 증거성 표지로, 단독으로 사용되면 시제 표지로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김진웅(2012)은 일관성 부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Kim(2006)은 이중 증거성 표지와 영 증거성 표지를 추가하여 4개의 하위범주를 제안하고 있다.

- (10) Kim(2006)의 한국어 증거성 표지 유형
  - a. 직접 증거성 표지 (시각, 청각, 기타 감각에서 온 증거)
    - 과거 경험의 증거성 표지: -더라, -더라고
  - b. 간접 보고 증거성 표지
    - 전달 증거성 표지: -대, -다며
  - c. 이중 증거성 표지
    - 과거의 경험 + 전달 증거성 표지: -더래
  - d. 영(Zero) 증거성 표지: -어/-아

그러나 Kim(2006)의 분석대로 이중 증거성 표지를 인정하는 것은 분리될 수 있고 기능도 다른 -*터*-와 -*래*-를 임의로 또 다른 범주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며, 영 증거성 표지의 설정에 대해 김진웅(2012)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진웅(2012)은 Aikhenvald(2004)의 증거성 유형에 입각하여 직접, 추론, 보고의 하위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 (11) 김진웅(2012)의 한국어 증거성 유형
  - a. 직접(Direct): -더-, -네
  - b. 추론(Inferred): -지
  - c. 보고(Reportative): -대, (-래, -재, -내)

증거성 표지를 형태소별로 분리하여 제시한 것이 장점이지만, -*지*-를 증거성 표지로 주장하는 김진웅(2012)의 주장은 -*겠*-이 증거성 표지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과 연동되어 있으며,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송재목(2009, 2011)도 증거성 표지를 형태소별로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직접지식, 현재의 감각적 관찰, 간접지식, 보고의 4가지 증거성 표지를 제시하고 있다.

- (12) 송재목(2009, 2011)의 한국어 증거성 유형
  - a. 직접지식-과거의 감각적 관찰: -더-
  - b. 직접지식-현재의 감각적 관찰: -네
  - c. 간접지식: -겠-
  - d. 보고: -ㄹ

송재목은 김진웅(2012)과는 달리 -*겠*-을 추론에 해당하는 간접지식을 의미하는 증거성 표지로 보고 있다. 이러한 송재목의 접근은 증거성 표지의 체계를 보여준다. 다만 이들의 연구가 의미론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통사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송재목(2009)을 기반으로 하고, 인용의 증거성 표지 -*고*-를 포함하여 한국어의 증거성 표지가 나타나는 통사 구조를 탐색하고자 한다. (12)의 구체적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 (13) a. 직접지식-과거의 감각적 관찰: 요다가 집에 가더라.
- b. 직접지식-현재의 감각적 관찰: 요다가 집에 가네.
- c. 간접지식: 요다가 집에 갔겠다.
- d. 보고: 요다가 집에 갔대.

### 2.3. 증거성 표지의 중복 실현

송재목(2009, 2011)과 Sohn(2018)은 하나의 술어에 간접 지식과 직접지식의 증거성 표지가 동시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송재목(2009, 2011)은 '간접지식+직접지식, 간접지식+보고, 직접지식+보고, 간접지식+직접지식+보고'의 조합이 가능하다는 것에 주목하여 증거성 표지들 사이의 위계를 설정하고 있다.

(14) 간접지식+직접지식

- a. 저녁에 비가 오겠더라. (간접지식 ‘-겠-’+과거의 감각적 관찰 ‘-더-’)
- b. 저녁에 비가 오겠네. (간접지식‘-겠-’+현재의 감각적 관찰‘-네’)

(15) 직접지식+보고

- a. 요다가 집에 가더라. (과거의 감각적 관찰 ‘-더-’+보고 ‘-ㄹ’)
- b. 요다가 집에 가더라고. (과거의 감각적 관찰 ‘-더-’+보고 ‘-라고’)

(16) 간접지식+보고

- a. 이 책 사서 보면 공부 잘 하겠대. (간접지식‘-겠-’+보고 ‘-ㄹ’)
- b. 개는 항상 웃겨 죽겠다던데. (간접지식‘-겠-’+보고 ‘-던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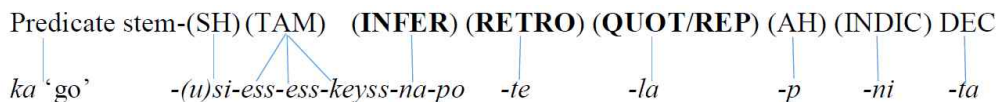
(17) 간접지식+직접지식+보고 (간접지식 ‘-겠-’+과거의 감각적 관찰 ‘-더-’+보고 ‘-ㄹ’)

- a. 요다가 그러는데, 저녁에 비가 오겠더라.
- b. 계단을 못 오르겠더라.
- c. 귀여워서 미쳐버리겠더라.

증거성 표지가 표현하는 명제를 획득하여 전달하는 것은 화자이다. 그러나 정보 획득의 주체가 반드시 화자일 필요는 없고, 제 3자, 혹은 세상사의 일반적인 지식이 될 수도 있다. 이때 증거성의 표지들은 각기 다른 주체를 지향할 수 있다. 가령 (14a)에서 ‘저녁에 비가 오다’라는 명제에 대한 출처는 ‘요다’이고, 요다가 획득한 정보, ‘저녁에 비가 오다’는 간접 지식 표지 ‘-겠-’과 연결되어 직접 관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지식에 의한 것임을 나타낸다. 여기에 ‘-더-’가 연결되어 ‘저녁에 비가 오겠다’는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추정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ㄹ’은 ‘저녁에 비가 오겠더라’라는 진술을 화자가 요다로부터 직접 들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증거성의 표지가 중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Sohn(2018)과 송재목(2009)은 한국어의 용언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Sohn(2018)과 송재목(2009)은 한국어 용언의 구조를 각각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18) 한국어의 용언 구조 (Sohn 2018)



‘(The reporter) says [*-la*] (s)he perceived [*-te*] that it appeared [*-na-po*] (to him/her) that (a senior person) might [*-keyss*] have gone’ (talking to a senior addressee [*-p-ni-ta*])

(19) 한국어의 용언 구조 (송재목, 2009: 225)

어간+(주체존대)+(시제)+(간접지식)+(직접지식)+서법+(보고)+(상대존대)  
 (예: 가-시-었-겠-더-라-ㄹ-요)

특히 송재목은 (19)의 선형적 용언 구조에 근거하여 (18a)의 층위적 구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20) 한국어 용언의 구조 (송재목, 2009: 225)

[REPORTED [DECLARATIVE [PAST SENSORY [INFERENCE [PROPOSITION 저녁에 비가 오-] -겠-] -더-] -라] -ㄹ]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질문은 명제 외곽의 증거성 표지들이 어느 통사 범주에 속하는 가이다. 명제는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다. 이 명제에 부가되는 증거성 표지들은 선행연구들이 암묵적으로 굴절소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보고 증거성 표지는 서법 표지(Declarative) -라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굴절소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다. 인용 증거성 표지 -고의 경우도 아래와 같이 서법 표지 -디의 외곽에 나타난다. 이 경우 -고는 일반적으로 보문소로 간주된다.

(21) 요다가 영어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들었어.

이러한 의문의 시작은 증거성 표지의 통사적·의미적 특성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요구하며, 통사적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 3. 증거성 표지의 통사적·의미적 특성

#### 3.1. 증거성 표지와 부정의 영향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장에서 증거성 표지가 나타내는 증거성 의미와 명제 의미는 분리될 수 있다. 이 때 증거성 의미와 부정 표지는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증거성 내용은 부정 표지의 영향권 밖에 위치한다(De Haan, 1999; Faller, 2002; Izvorski, 1997; Matthewson et al., 2007; 김진웅, 2012). 가령, 아래의 예에서 부정 표지 안은 명제 의미에 국한되고, 보고 증거성 표지의 의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2) a. 요다가 집에 안 왔다.
- b. 명제 의미:        요다가 집에 안 왔다.
- c. 증거성 의미:   √요다가 집에 안 왔다는 말을 들었다.  
                          \*요다가 집에 왔다는 말을 안 들었다.

부정 표지가 양화사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 양화사는 부정 표지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양화사 *모든*이 부정 표지와 공존하는 경우 작용역 중의성(scopal ambiguity)이 발생한다. 많은 학자들이 부분 부정과 전체 부정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한국어의 장형부정문에서 *모든*이 목적어와 결합한 경우를 살펴보자(Baek, 1998; Hagstrom, 2000; Kim, 2000; Song, 1982; Suh, 1989, 1990 등).

- (23) a. 요다가 모든 책을 읽지 않았다.
- b. 부분 부정: √요다가 일부의 책만 읽었다.
- c. 전체 부정: √요다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

(23)의 예문에서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이 모두 가능하다. 통사적으로는 부정 표지가 목적어보다 구조적으로 상위에 있으므로, 전체 부정은 설명되지만, 부분 부정은 설명하기 어렵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화사 상승(Quantifier raising)이라는 기제를 도입하였고(May, 1985), 양화사는 본래의 자리에서 상승하여 TP에 부가된다. 이 경우 양화사가 부정 표지보다 상위에 존재하게 되어 부분 부정의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증거성 표지는 양화사 상승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양화사와 부정어의 중의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증거성 표지가 양화사의 작용역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증거성 표지가 나타나는 통사적 자리가 양화사가 부가되는 TP보다 상위임을 보여준다. 보고 증거성 표지뿐만 아니라 증거성 표지 모두가 이러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은 증거성 표지가 TP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CP 영역에 있음을 의미한다.

- (24) 과거의 감각적 관찰
  - a. 요다가 모든 책을 읽지 않더라.
  - b. 부분 부정: √요다가 일부의 책을 읽지 않았다.  
          전체 부정: √요다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
  - c. 증거성 의미: √요다가 일부의 책을 읽지 않는 것을 보았다.  
                  √요다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을 보았다.

## (25) 현재의 감각적 관찰

- a. 요다가 모든 책을 읽지 않네.
- b. 부분 부정:  $\sqrt{\text{요다가 일부의 책만 읽었다.}}$   
전체 부정:  $\sqrt{\text{요다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
- c. 증거성 의미:  $\sqrt{\text{요다가 일부의 책을 읽지 않는 상황을 보고 있다.}}$   
 $\sqrt{\text{요다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상황을 보고 있다.}}$

## (26) 간접지식

- a. 요다가 모든 책을 읽지 않았겠다.
- b. 부분 부정:  $\sqrt{\text{요다가 일부의 책만 읽었다.}}$   
전체 부정:  $\sqrt{\text{요다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
- c. 증거성 의미:  $\sqrt{\text{요다가 일부의 책을 읽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알게 되었다.}}$   
 $\sqrt{\text{요다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알게 되었다.}}$

## (27) 보고

- a. 요다가 모든 책을 읽지 않았대.
- b. 부분 부정:  $\sqrt{\text{요다가 일부의 책만 읽었다.}}$   
전체 부정:  $\sqrt{\text{요다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
- c. 증거성 의미:  $\sqrt{\text{요다가 일부의 책을 읽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sqrt{\text{요다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 3.2. 부사의 수식

한국어의 증거성 표지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어제*, 혹은 *내일*과 같은 부사는 증거성 표지가 전달하는 명제의 시제와 연동된다. (28)과 (29)에서 비문은 이들 부사와 과거 혹은 미래 시제와 시제 정보가 불일치하여 충돌하기 때문이다.<sup>1)</sup>

- (28) a. 어제 요다가 집에 가더라.  
b. \*어제 요다가 집에 가네.  
c. \*어제 요다가 집에 가겠다.  
d. 어제 요다가 집에 갔겠다.  
e. 어제 요다가 집에 갔대.
- (29) a. \*내일 요다가 집에 가더라.  
b. \*내일 요다가 집에 가네.  
c. 내일 요다가 집에 가겠다.  
d. \*내일 요다가 집에 갔겠다.  
e. \*내일 요다가 집에 갔대.

반면, 가능성(possibility), 개연성(probability), 확실성(certainty)을 나타내는 부사는 명제와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성 표지와 연결된다. (30)과 (31)의 *아마도*와 *어쩌면*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부사이고, 가능성이나 개연성은 직접 혹은 간접 증거를 근거로 하는 증거성 표지와는 호응하지 못한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아닌 추론을 나타내는 증거성 표지 *-겠-*과는 호응할 수 있다. 추론한 내용과 가능성은 서로 충돌하지 않기 때문이다.

1) 심사위원 한 분이 (29b)와 (29d)는 정문으로 판단 가능할 수 있을 듯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5인에게 문법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저자와 동일한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저자와 다른 문법성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 (30) a. \*아마도 요다가 집에 가더라.  
 b. \*아마도 요다가 집에 가네.  
 c. 아마도 요다가 집에 가겠다.  
 d. 아마도 요다가 집에 갔겠다.  
 e. \*아마도 요다가 집에 갔대.
- (31) a. \*어쩌면 요다가 집에 가더라.  
 b. \*어쩌면 요다가 집에 가네.  
 c. 어쩌면 요다가 집에 가겠다.  
 d. 어쩌면 요다가 집에 갔겠다.  
 e. \*어쩌면 요다가 집에 갔대.

반면 *정말로*, *확실히*, *진짜로* 등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부사들은 증거성 표지 모두와 순조롭게 호응한다.

- (32) a. 정말로 요다가 집에 가더라.  
 b. 정말로 요다가 집에 가네.  
 c. 정말로 요다가 집에 가겠다.  
 d. 정말로 요다가 집에 갔겠다.  
 e. 정말로 요다가 집에 갔대.

*아마도*, *어쩌면*, *정말로* 등은 TP에 부가되는 부사류로 알려져 있고, TP 외곽의 증거성 표지들과 호응관계를 이룬다. 한편 Cinque(1999)는 부사가 관련 기능 범주의 지정어 자리에서 허가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부사의 의미기능과 관련 기능 범주는 지정어-핵 일치(Spec-head agreement)를 통해 허가된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각각의 증거성 표지들은 독립된 기능범주를 구성하고, 기능범주의 지정어 자리에 *아마도*, *어쩌면*, *정말로* 등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증거성 표지 기능범주와 부사의 의미기능이 점검되고 허가된다. 따라서 (30)과 (31)의 비문들은 *아마도*와 *어쩌면*의 의미기능이 직접 관찰 혹은 경험한 증거를 제시하는 증거성 표지와 불일치하기 때문에 허가되지 않는다.

### 3.3. 증거성 표지와 의문문

평서문 표지와 증거성 표지가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의문 표지와 증거성 표지는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증거성 표지의 의미기능과 의문 표지의 의미기능 간에 허가 관계가 존재한다. 의문 표지는 증거성 표지가 나타내는 간접지식, 보고의 의미적 속성을 점검하고 허가한다. 그러나 직접 지식을 나타내는 증거성 표지, *-더-나 -네-*는 의문 표지와 공가하지 못한다. 현재나 과거의 감각적 관찰 사실 혹은 경험을 통해 획득된 직접 증거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 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33a)와 (33b), (33c)은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들 문장이 믿을 수 없음이나 놀람 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문법적이지만, 이 경우 의문문의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반면 간접 지식이나 보고 등을 나타내는 증거성 표지와 의문 표지는 공존할 수 있다.<sup>2)</sup>

- (33) a. \*요다가 집에 가더라(구)?  
 b. \*요다가 집에 갔더라(구)?  
 c. \*요다가 집에 가네?  
 d. 요다가 집에 가겠지?  
 e. 요다가 집에 갔겠지?  
 f. 요다가 집에 갔대요?

2) 심사위원 한 분이 '(33c)가 믿을 수 없거나 놀랄 때만 정문이라면, 같은 맥락에서 (33d)도 일반 의문문의 기능에서는 비문이고 놀람에서만 정문이 아닌지?'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5인에게 문법성을 재확인하였고, 모두 '예/아니오'의 응답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의외성(mirativity)의 의미와 연동될 경우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이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33)에서 보듯이 의문 표지는 증거성 표지보다 뒤에 나타난다. 핵 후행 언어(head-final language)인 한국어와 같은 언어에서 후속하는 핵은 선행하는 핵보다 구조적으로 상위에 위치한다. 따라서 통사구조 상에서 의문 표지가 증거성 표지보다 상위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 3.4. 인용 증거성 표지 -고

-고는 통상적으로 보문소로 분석되던 형태소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인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말하다*나 *묻다* 등의 동사류와 함께 사용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발화를 간접 인용의 성격이 특히 강하다. *생각하다*나 *믿다* 등의 동사류와 사용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용 증거성 표지로서의 -고는 보고 증거성 표지 -//와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sup>3)</sup>.

- (34) a. 레이는 요다가 집에 가더라고 말했어요.  
 b. 레이는 요다가 집에 갔더라고 말했어요.  
 c. \*레이는 요다가 집에 가네고 말했어요.  
 d. 레이는 요다가 집에 갔겠다고 말했어요.  
 e. 레이는 요다가 집에 갔다고 말했어요.  
 f. \*레이는 요다가 집에 갔대고 말했어요.

- (35) a. 레이는 요다가 집에 가더냐고 물었어요.  
 b. 레이는 요다가 집에 갔더냐고 물었어요.  
 c. \*레이는 요다가 집에 가네냐고 물었어요.  
 d. 레이는 요다가 집에 갔겠냐고 물었어요.  
 e. 레이는 요다가 집에 갔냐고 물었어요.  
 f. \*레이는 요다가 집에 갔대냐고 물었어요.

*권유하다*, *조언하다* 류의 동사류는 그 의미 속성상 대부분의 증거성 표지와 공기할 수 없고, 인용 증거성 표지와 공기할 수 있다. 권유/조언은 직접 지식이나 간접 지식을 전달하거나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청유하거나 명령·지시하는 내용과 결합한다. 그러나 청유·명령·지시 등의 문장을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인용 증거성 표지와는 결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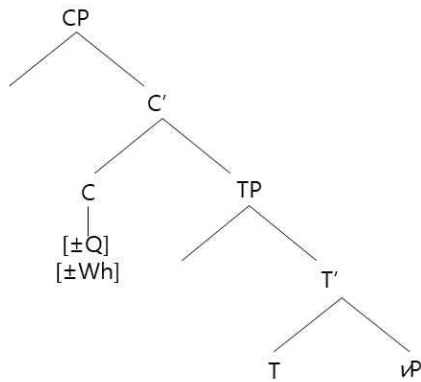
- (36) a. 레이는 집에 가자고 권유했다.  
 b. 레이는 집에 가라고 조언했다.

## 4. CP의 세부 구조

일반적으로 보문소는 문장의 유형에 대한 정보가 삽입되는 자리이다. Cheng(1991)에 따르면,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를 밝혀주는 문장의 유형은 밝혀져야 하고, 문장 유형의 정보, 즉  $[\pm Q]$  자질과  $[\pm Wh]$ 이 보문소에 삽입된다. 주절의 보문소는  $[+Q]$ 일 때, I-to-C 이동을 유발하고,  $[-Q]$ 일 때는 아무런 통사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종속절의 보문소는  $[-Q]$ 일 때, *that*/ $\emptyset$ 을 삽입하고,  $[+Q]$ 일 때, *whether/if*를 삽입한다. 따라서 영어와 같은 언어의 문장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3) 직접 인용 표지인 -*라고*가 사용된 경우에는 문법적이다.  
 a. 레이는 요다가 집에 가네라고 말했어요.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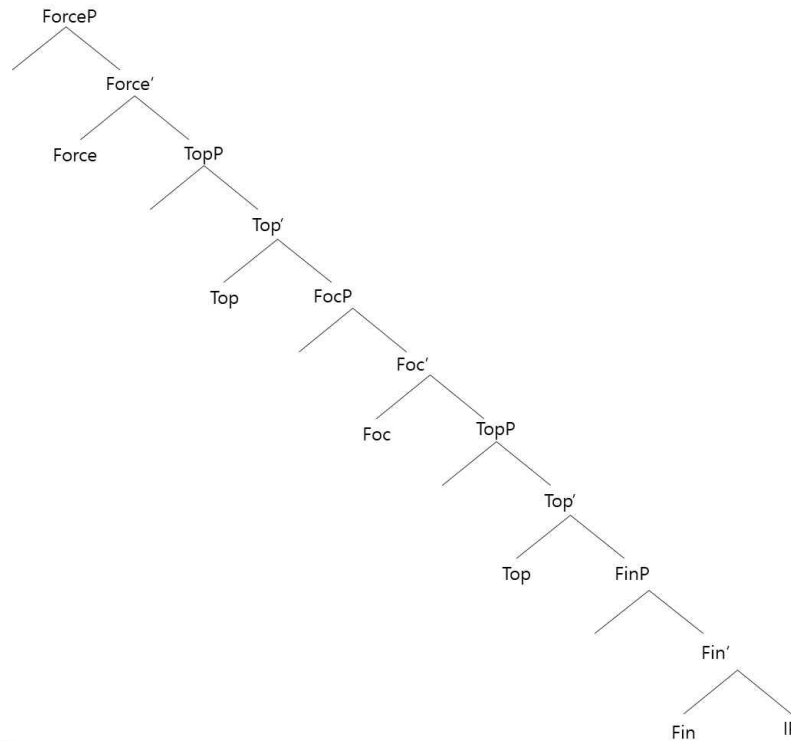
한국어와 같은 언어는 위와 같은 단순한 보문소 구조로 설명하기 어렵다. 전술한 바와 같이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를 나타내는 형태소 *-다*가 인용표지 *-고*와 함께 나타난다.

- (38) 레이는        요다가        집에        갔다고                말했다.  
 Leia-nun Yoda-ka   cip-ey   ka-ss-ta-ko       mal-ha-ss-ta  
       -Top        -Nom   home-to go-Past-Decl-Comp   say-do-Past-Decl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에서 대부분 *-다*는 서법 표지인 declarative marker로, *-고*는 보문소 complementizer로 분석하고 있으나, 문장의 유형을 나타내는 표지와 보문소가 중복 실현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한 경우가 드물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보문소가 중복 실현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다층위의 보문소구 (Layered CP structure)를 설정해야 한다.

보문소 구조가 다층위라는 것은 이미 Rizzi(1997)에서 주장되었다. 이탈리아어에서 주제(topic)가 중복 실현될 수 있고, 초점(focus)도 실현될 수 있다. 이들 주제와 초점은 문장의 왼쪽에 나타나고 이들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Topic과 Focus라는 기능범주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초점이 두 주제 사이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세 부구조를 가진 보문소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Force(Chomsky, 1995)는 문장의 유형을 표시하고, Fin(ite)은 문장이 시제절 인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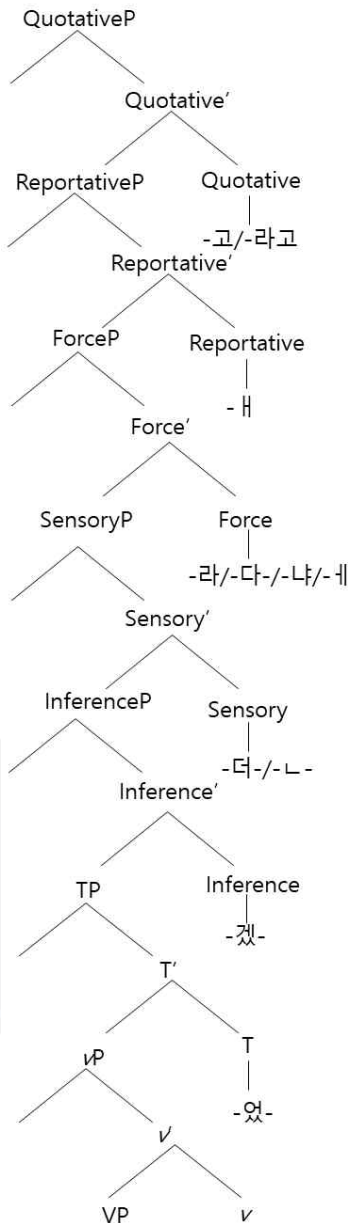
Rizzi의 CP 구조는 문장의 주제와 초점을 구조적으로 포착한다는 점에서 담화 기능을 포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증거성에 대한 연구들에서 증거성 혹은 화행 구조가 TP의 외곽에 투사된다는 주장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Bhadra, 2017, 2018; Demonte & Fernández-Soriano, 2014; Simeonova & Zareikar, 2015; Speas, M., 2004; Speas, P., 2008; Tenny and Speas, 2013; Tenny, 2006 등)<sup>4)</sup>. 이들의 주장은 증거성의 의미는 TP 내부에서 포착되는 것이 아니라 TP의 외곽에서 포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문장의 명제적 의미와 구별되는 증거성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여러 증거성 표지들이 중복 실현될 수 있고, 중복 실현되는 경우 일정한 순서가 있다. 또한 증거성 표지들은 부정 표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증거성 표지들은 TP보다 상위의 구조, 즉 CP의 영역에 위치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에 Rizzi의 보문소 구조를 변용하여 받아들인다면, 한국어의 보문소 구조는 기존의 C에 해당하는 Force에 추가하여 Inference, Sensory, Reportative, Quotative의 추가적인 핵을 가진 것이 된다.

TP와 제일 먼저 병합되는 것은 간접 지식 및 추론을 나타내는 증거성 표지 *-겠-*이고, *-겠-*이 나타나는 핵은 Inference이다. 직접 관찰한 지식을 나타내는 *-ㄷ-*는 Sensory에 의해 도입되며, Inference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다음으로 Force가 병합되어 문장의 유형을 표시한다. 여기에서 현재의 감각적 관찰 인용 표지 *-ㄴ-*는 *-ㄷ-*과 *-//*로 분리하여 각각 Sensory와 Force에 나누어 제시하였다. 보고 증거성 표지인 *-//*는 Reportative에 의해 도입될 수 있고, 간접인용 표지 *-고*와 직접 인용표지 *-라/크*는 Quotative에 의해 도입된다.

4) 이러한 주장은 통사적 특징에 의해 유도된 것이라기보다는 증거성의 의미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의미적 구조(semantic structure)에 해당한다.

(40)



(40)과 같이 한국어의 CP를 확장하고, 증거성 표지들이 독립된 기능범주로서 존재하게 되었을 때,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예문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증거성 표지들이 TP보다 상위범주인 CP에 존재하게 되므로 부정어의 영향권에서 항상 벗어나 있다는 사실이 구조상으로 포착된다. 또한 각각의 증거성 표지 기능 범주들과 *아마도*, *어쩌면*, *정말로* 같은 부사와의 관계도 설명된다. *아마도*, *어쩌면*은 증거성 기능범주 Inference에 의해 허가되고 [Spec, Inference] 자리에 나타난다. *정말로*는 어느 증거성 기능범주와도 공존할 수 있다.

의문 표지와 증거성 표지의 공기 및 충돌 현상은 기능범주 간의 선택(selection)의 결과이다. Force의 [-Q]는 Sensory나 Reportative와 의미적으로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할 수 있으나, [+Q]는 Sensory나 Reportative와 의미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공기하지 않는다. 그 결과 직접 지식의 증거성 표지나 보고의 증거성 표지가 있는 문장은 의문문으로 도출될 수 없다. Quotative와 Reportative는 서로간의 의미적 유사성 때문에 비선택적 관계에 있어 공기할 수 없다. Quotative와 Reportative가 공기제약(co-occurrence restriction)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두 형태소가 하나의 기능범주를 공유할 가능성도 있으나, Quotative는 주절과 연결되고, Reportative는 문장을 종결시킨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로 다른 기능 범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어의 증거성 표지가 TP 내부에서 투사되는 것이 아니라 CP에 투사된다는 것은 증거성 표지가 보여주는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한국어의 이러한 특성은 영어의 양태로 표현되는 가능성, 개연성, 확실성과는 통

사적으로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영어습득에 있어서 증거성 체제를 양태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하는 바, 한국어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발화에서 양태표현이 적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sup>5)</sup>, 이 결과는 한국인의 영어가 직설적이라는 현상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 5. 결론

한국어의 증거성 체계는 직접 증거, 간접증거, 보고, 인용을 포함하며, 부정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부사구 선택에 제약이 있으며, 의문 표지와 결합에도 제약이 있다. 또한 인용과 보고 표지는 공기하지 못한다. 이러한 통사적·의미적 특성은 CP를 보다 세분하고, 각각의 증거성 표지들이 기능범주로 존재하는 구조에서 효과적으로 설명된다. 특히 기능범주 간의 선택 제약은 특정 기능범주들이 공기하지 못하는 현상을 포착한다.

## 참고문헌

- Aikhenvald, A. Y.(2004). *Evidenti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ek, J. Y. (1998). Negation and object shift in early child Korean. In U. Sauerland & O. Percus (Eds.), *The interpretive tract* (MITWPL 25)(pp. 177-204), Cambridge, MA: MIT Press.
- Bhadra, D. (2017) *Evidentiality and questions: Bangla at the interfa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Rutgers, The State Univ. of New Jersey.
- Bhadra, D. (2018). Evidentials are syntax-sensitive: The view from Bangla. *Glossa: A Journal of General Linguistics*, 3(1), 106. DOI: <https://doi.org/10.5334/gjgl.449>
- Bybee, J., Perkins, R., & Pagliuca, W.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fe, W. (1986). Evidentiality in English conversation and academic writing. In W. Chafe and J. Nichols (Eds.), *Evidentiality: The linguistic coding of epistemology* (pp. 261-272).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Cheng, L. (1991). *On the typology of wh-ques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 The MIT Press
- Chung, K. (2005). *Space in tense: The interaction of tense, aspect, evidentiality and speech act in Kore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 Chung, K. (2010). Korean evidentials and assertion. *Lingua*, 120, 932-955.
- Cinque, G. (1999). *Adverbs and functional heads: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 Haan, F. (1999). Evidentiality and epistemic modality: Setting the boundaries. *Southwest Journal of Linguistics*, 18, 83-101.
- Demonte, V., & Fernández-Soriano, O. (2014). Evidentiality and illocutionary force: Spanish matrix *que* at the syntax-pragmatics interface. In A. Dufter & A. O. de Toledo (Eds), *Left sentence peripheries in Spanish: Diachronic, variationist, and typological perspectives*. [Linguistics Today Series] (pp. 217-252). Amsterdam: John Benjamins
- Faller, M. (2002). *Semantics and pragmatics of evidentials in Cuzco Quechua*.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http://ling.man.ac.uk/info/staff/MTF/publications.htm>
- Hagstrom, P. (2002). Implications of child error for the syntax of negation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5) Walker(2016, 2019)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와 한국어를 제2언어로 하는 화자의 증거성 표지 사용에 있어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의 증거성 표지 사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 Linguistics*, 11, 211–242.
- Izvorski, R. (1997). The present perfect as an epistemic modal. In A. Lawson (Ed.), *Semantics & linguistic theory (SALT) VII* (pp. 222–239),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 Jespersen, O.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George Allen & Unwin Ltd.
- Kim, J. (2012). *Korean evidentials in discour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Kim, J-B. (2000). On the prefixhood and scope of short form negatio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8, 403–418.
- Kim, N. (2000). Reportative evidential in Korea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10, 105–124.
- Kim, M. Shin (2006). *Evidential strategies in Korean conversations: An analysis of interactional and conversational narrative func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Lim, D. (2010). *Evidentials and interrogatives: A case study from Kore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Lyons, J. (1977). *Semantics 2*. Cambridge Univ. Press
- May, R. (1985). *Logical form*. Cambridge, Mass.: MIT Press.
- Palmer, F. R. (2001). *Mood and modality* (2nd ed.), Cambridge: CUP.
- Rizzi, L. (1997). The fine structure of the left periphery. In L. Haegeman (Ed.) *Elements of grammar: A handbook of generative syntax* (pp. 281–337). Dordrecht: Kluwer.
- Simeonova, V., & Zareikar, G. (2015). The syntax of evidentials in Azeri, Bulgarian, and Persian. *Proceedings of the 2015 annual conference of the Canadian Linguistic Association*.
- Sohn, H. (2018). Evidentiality in Korean. In A. Y. Aikhenvald (Ed.) *The Oxford handbook of evidenti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OI: 10.1093/oxfordhb/9780198759515.013.33
- Song, S-C. (1982). On interpreting the scope of negation in Korean. *Language Research*, 18(1), 197–215.
- Speas, M. (2004). Evidentiality, logophoricity and the syntactic representation of pragmatic features. *Lingua*, 114, 255–276.
- Speas, P. (2008). On the syntax and semantics of evidentials. *Language and Linguistics Compass* 2, 940–965.
- Speas, P., & Tenny, C. (2003). Configurational properties of point of view roles. In A. M. Di Sciullo (Ed.), *Asymmetry in grammar*, 1 (pp. 315–345).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DOI: <https://doi.org/10.1075/la.57.15spe>
- Suh, J-H. (1989). Scope interaction in negatio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3, 527–536.
- Suh, J-H. (1990). *Scope phenomena and aspects of Korean syntax*.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Tenny, C. (2006). Evidentiality, experiencers, and the syntax of sentenc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5, 245–288.
- Walker, C. (2016). Identifying pragmatic uses of evidentials in Korean discourse: Observations from native and non-native speaker data. *Language Facts and Perspectives*, 37, 91–116.
- Walker, C. (2019). L1 and L2 Korean evidential use: Using the discourse completion task (DCT). *Language Facts and Perspectives*, 46, 31–55.
- Willett, T. (1988). A cross-linguistic survey of the grammaticization of evidentiality. *Studies in Language*, 12, 51–97.
- 김진용. (2012). 한국어 증거성의 체계. *한국어 의미학*, 39, 101–124;
- 송재목. (2009). 한국어 증거성표지의 중복실현과 통사영역.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221–228.
- 송재목. (2011). 한국어 증거성표지의 중복실현. *비교문화연구*, 22, 355–375.

송재목. (2018). 한국어의 어휘적 증거성. *언어학*, 82, 105-131.

**심창용**

2104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62

경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전화: (032) 540-1332

이메일: simyong@ginue.ac.kr

Received on August 20, 2020

Revised version received on October 12, 2020

Accepted on October 15, 2020

